

다니엘 케이 다르코 박사, 감옥서신, 4차 세션, 문제의 핵심, 골로새서 2 장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감옥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세션 4, 문제의 핵심, 골로새서 2장입니다.

감옥서신에 대한 성경 연구 강의 시리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두 강의, 두세 강의에서 시작했듯이, 우리는 몇 가지 기본적인 서론을 살펴보고 골로새서 1장을 다루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저는 몇 가지 사항, 즉 바울의 기도, 감사, 몇 가지 훈계에 주의를 기울였고, 바울, 그의 사역, 그의 메시지, 그의 개인적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마무리할 때, 저는 때때로 학문적으로 2장의 시작 부분, 특히 1절에서 5절까지 살펴보았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2장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주의를 끌기 위해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ESV에서 읽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직접 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큰 싸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격려되어 사랑으로 함께 묶여서 이해의 모든 확신에 이르는 모든 부에 이르고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지식, 곧 그리스도,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영어 독해에서 학자들이 그리스어 텍스트를 보면서 관찰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장 끝 부분의 논의는 이 처음 몇 구절에서 계속되는 듯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2장의 시작 부분을 읽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어로 시작 단어는 for로 번역됩니다.

실제로 그것은 이전 토론, 특히 바울의 고난에 대한 토론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2장으로 내려가 이 고난의 몇 가지 세부 사항과 중요성을 지적하여 콜로새 교회가 직면한 현재 문제와 관련시킵니다. 또한 이전 토론을 바탕으로 구축하려는 매우 중요한 부분을 시작하는 강조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성경, 당신의 영어 성경에서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휴식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주석을 집어들 때, 당신은 어떤 주석가들이, 아니, 우리는 29절부터 2절 5절까지 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연결어가 실제로 29절과 1절에서 5절 사이의 연결을 보여주기 때문에,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어 성경을 위해, 저는 2장의 시작으로 돌아가서 2장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거기에서 읽기 시작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29의 끝을 1까지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주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이 링크를 만드는 방법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몇 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이전 테스트의 연속으로 읽히거나 새로운 문단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도하듯이 새로운 문단으로 취급한다면, 이 몇 구절,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초점은 거짓 가르침의 잠재적 침투나 출현, 거짓 가르침의 느린 출현을 배경으로 바울의 사역의 본질이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콜로새 교회에서, for는 제가 키워드로 언급해 온 단어로, 이를 사용하여 새로운 문단을 연결하거나 시작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1장에서 논의하면서, 얼마나 큰 투쟁인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투쟁이라는 단어는 다툼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거의 "나는 당신이 위대한 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고, 이 시험을 볼 때마다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글썄요, 바울이 사역에서 자신의 투쟁을 했기 때문에 내가 투쟁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나는 당신이 나의 큰 투쟁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가 이 투쟁이 실제로 독자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것이 당신에게 투쟁이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나서 내려가서, 글썄요, 그것은 또한 제가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학문에서의 토론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콜로새 교회에는 몇몇 친숙한 얼굴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바브라는 바울이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이 알았던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빌레몬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빌레몬서에서 우리는 콜로새의 특정 인물에 대한 바울의 지식에 익숙한 몇몇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교회에 실제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은 바울이 자신을 아는 몇몇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주의를 기울이고, 알다시피,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을 위해 고생해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라오디게아의 신자들을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은 아마도 여러분이 영어로 발음하고 즐기는 이름 중 하나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의 주의를 끌게 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에서 이 특정 이름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중에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이것은 골로새서 이후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골로새서 4장에서도 언급됩니다.

이걸 손에 넣고 읽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요한의 계시록에서 천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 말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기서 언급하는 교회와 같습니다. 이 강의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한 도시는 리커스 벨리의 삼도(三都) 중 하나입니다.

히에라폴리스를 포함해서요. 히에라폴리스도 언급될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요한의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특히 계시록 3장 15절에서 언급합니다. 나는 네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하지만 당신이 이들 중 하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편지의 이 시점부터, 그리고 이 편지와 계시록 이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계시록의 구절을 읽어보면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닌 종류의 라이프스타일에 연루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불과 12마일 떨어진 콜로새 교회에 그가 그들을 위해 고군분투해 왔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는 또한 골로새서 1절 끝에서 말했듯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는 또한 그를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이 특정 마을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로 받아들였는데, 이는 매우, 매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2절과 3절을 주목하세요. 그리스어로는 목적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표시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그가 말하는 것을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는 실제로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고 쓰고, 그것이 이런 효과로 번역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격려되도록, 사랑으로 함께 뭉쳐져서, 이해의 확신과 하나님의 신비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모든 부에 이르도록.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목록에서 첫 번째로, 그는 그것들을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는 라오디게아의 신자들을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그를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그들은 그의 고군분투가 그저 그가 어떤 종류의 고통 모드에 스스로 들어가 자신을 위대한 순교자라고 부르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요.

그의 고통은 모두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에서 격려받을 수 있으므로, 잠깐 멈추어 마음이라는 단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영어에서 우리가 하트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또는 영어에서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표현으로 하트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그 단어를 더 감정적으로 들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마음에서 느낍니다. 친절한 말과 몸짓으로 유명한 제 동료는 "bless your heart" 라고 말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들은 표현될 때 더 많은 감정적 표현을 전달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폴, 저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대신하여 이 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음으로 격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 지중해 문화권의 마음은 감정을 넘어서는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감정을 배제한 것은 아니지만, 의지의 중심입니다. 삶의 중심, 열정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은 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격려되고, 그들의 정신이 깨달아지고, 그들의 존재감 전체가 불타오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하시는 길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격려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격려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중심이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격려받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연합하거나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절을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그는 그들이 연합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모든 길을 가고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의 영향으로 인한 크고 자연스러운 결과 중 하나는 실제로 교회에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온갖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교회에서 볼 수 있듯이요. 고린도 전서에 있는 교회에서 그다지 칭찬할 만한 가르침이 아니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마도 위대한 교사인 바울에게 속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지도자인 게바나 베드로에게 속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련된 인물을 모르지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실제로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에게 속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폴로에게 속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 가르침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폴로는 카리스마적인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 이 인물을 잊었다면,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카리스마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그는 연설과 선포에서 너무나 웅변적이어서 사람들이 그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신학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를 따로 데려가 그의 신학을 바로잡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것을 봅니다.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형태의 가르침 주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콜로새에서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거짓 가르침이 침투한 자연스러운 결과는 사람들이 함께 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큰 싸움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함께 필요하게 하려는 것이지, 편의를 위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함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그들이 신비를 알 수 있도록 자신의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 세 번째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신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이전 강의에서 언급했듯이, 바울은 학문적 언어로 높은 그리스도론이라고 불리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보여 주어, 속거나 거짓 가르침에 흔들린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돌아와서 그들의 생각과 삶과 믿음을 오직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 큰 싸움을 하고 있다. 셋째, 너희가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려 함이라.

당신은 이해의 총명한 확신과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지식의 모든 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2절의 끝에서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찬송가에 대한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1장에서 앞서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 훌륭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믿음을 굳건히 하고, 초점을 맞추고, 거짓 가르침의 영향에 굴복하지 않아야 하는 기초로 주의를 끌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강조하면서 계속 나아갑니다. 그는 이 그리스도 안에, 만약 당신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모든 척도,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당신은 이 사람이 지식, 지혜, 이해에 너무 집착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어 봅시다. 다시 한 번, 1장을 요약하거나 성찰해 봅시다.

지금까지 접한 거짓 가르침의 영향을 견뎌낼 수 있도록 개발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필요한 것에 대한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배우다와 같은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지식과 같은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해와 같은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인지적 발달의 형태로 제자도의 어떤 형태를 실제로 가리키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그는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4절로 넘어갑니다. 그의 큰 투쟁에 대한 또 다른 이유를 제시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무도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전하는 것은 아무도 당신이 굴복해서는 안 될 어떤 것에 설득당하도록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당신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나는 몸으로는 떨어져 있었지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영으로 당신과 함께 있으며, 당신의 좋은 질서와 무엇에 대한 당신의 믿음의 확고함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둔 당신의 믿음, 즉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서 모셔지고 살아내는 믿음. 저는 당신의 주의를 영이라는 단어로 이끌기 위해 여기 옆에 무언가를 올려놓겠습니다. 영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무슨 뜻인지 알아내는 것은 종종 토론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인간의 영인가, 성령인가? 만약 당신이 골로새서에 대한 책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특히 주석가들 사이에서 이것을 명확히 하려는 세 문장 이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맥은 우리가 여기 ESV에서 보는 번역과 더

비슷해 보이는데, 인간의 영을 언급합니다. 그러나 문화적으로 인간의 영은 반드시 어떤 영적 구성 요소와 별개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고대 인류학에서 내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단지 육체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몸, 영혼,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몸은 종종 얽혀 있습니다 .

그리고 이것이 당신이 이것을 어떻게 번역하는지에 대한 논쟁을 보거나 마주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어 성경에서 많은 번역자들이 영을 인간의 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이것은 제가 당신의 주의를 끌 때의 구절 1에서 5까지의 구절입니다.

그것은 1장의 후속 또는 계속으로 사용되거나 볼 수 있거나 바울의 사역의 본질이나 중요성을 실제로 표현하는 다른 문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바울이 문제의 핵심에 도달하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는 학자들이 때때로 콜로새서의 놀리는 진술로 볼 수 있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제가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어리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콜로새서 2장 6절을 암기했을 때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고, 그것이 글자 그대로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학생들에게 일어서서 "알다시피, 콜로새서 2장 6절, 그러므로 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고 말함으로써 인상을 심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영어로 잘 번역되지 않은 단어들 있습니다.

그리스어로는 분사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ESV의 번역을 번역하거나 다시 번역한다면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서 세워지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게 되는 것으로 번역할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감사가 넘치도록 가르침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거기에서 교육적 측면, 거짓 가르침을 다루는 가르침적 요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콜로새서에 매우 중요한 이 두 구절을 살펴보고, 조금 나누어 봅시다. 그러면 6절에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무엇을 받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진 전통을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에서 받는다는 단어를 전통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한 많은 참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콜로새서와 6절에서 바울은 그 문장에서 전통에 관심이 없거나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세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하여 세례라는 단어를 분명히 언급한 다음 논의 때문입니다. 글썄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그 본문이 문자 그대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께 영접하였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읽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였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따라서 가장 자연스러운 독서 방식은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받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받는 대상을 받는 것이 세례를 의미한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단어는 다른 곳에서 세례를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최고라고 말했던 걸 기억하세요. 그는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는 콜로새서에 있는 모든 것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 위에 최고입니다.

우리는 콜로새서에서 높은 그리스도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있기를 원하시는 곳, 즉 문제의 핵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에 굴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전 진술에서 추론해 보자.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으니, 그렇게 행하라. 거기에서 행한다는 단어는 문자 그대로 걷는 것 또는 뒤로 걷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동, 삶의 방식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스어 단어는 행동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아마도 당신의 영어 번역 중 일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단어는 익숙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의 단어인 걷기는 그렇게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삶의 방식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듯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뿌리를 내리십시오.

저걸 보세요. 원예 용어가 여기서 쓰입니다. 원예가 너무 크다면 농업 용어라는 단어를 쓰고 싶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매우, 매우 잘 알고 있는 문명입니다. 농업과 건축적인 것들. 아시다시피, 영어에는 코린트 기둥과 같은 표현들이 모두 고대 코린트의 기둥을 지칭합니다.

이 지역 중 일부는 당시에 많은 진보된 건축과 농업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언어 중 일부를 사용할 때, 사람들의 청각과 그렇게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뿌리 를 내렸다고 말하려면, 그들은 실제로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씨앗이 심어진 비옥한 토양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씨앗은 자라며 뿌리는 폭풍 속에서도 이 나무나 식물이 부러지거나 구부러지거나 실제로 진로를 잃지 않도록 튼튼하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튼튼한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십시오.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그런 다음 그는 또 다른 용어, 건축 용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그 안에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요 건물의 기초를 더 많이 언급하는 건축 용어입니다.

곳에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졌다고 상상해보세요 . 그 기초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는 것ですよ. 이제, 여러분이 이런 곳에 세워졌다면, 힘이 닥쳐올 때, 폭풍이 닥쳐올 때, 다른 것들이 닥쳐올 때, 여러분은 흔들리거나 깨지거나 어떤 식으로든 박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튼튼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마치 풀이 끝난 것처럼 그는 또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특정 단어의 법적 부분을 얼마나 지나치게 강조하는지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풀이 사용하는 다음 용어이며, 원예 및 건축 용어를 제외하면 여기서는 법적 용어입니다.

그것은 보통 무언가를 검증하고, 무언가를 확립하는 검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길, 사실, 당신은 당신의 타당성과 당신의 근거, 당신이 믿음에 서 있는 근거가 흔들리지 않는 정도로 믿음 안에서 확립되거나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그는 그들에게 매우, 매우 친숙한 언어를 사용하여 강력한 진술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으니, 행실을 갖추고 이런 종류의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채택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농업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에게 뿌리를 두세요. 익숙하지 않다면 건축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확고한 기반 위에 세워지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법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그 안에서 확립되고, 확인되고, 검증받으십시오.

이 그림을 명확하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몇 분 또는 몇 초 후에 제가 올릴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에 대해 지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르침을 받았듯이요. 당신이 가르침을 받았듯이, 거짓 가르침을 다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정신적 과정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조점은 제가 이 교육에서 계속 강조하는 인지적 차원으로 되돌아가지만, 사실 우리는 지금 명시적이고 교육적인 또 다른 차원을 봅니다.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았듯이,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당신이 가르침을 받았듯이, 당신은 이것에 뿌리를 내리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확립되어야 했습니다. 만약 그것이 잘된다면, 이런 종류의 이미지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이제 세 가지 차원을 명확하게 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것이 콜로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기초를 정의한다면, 거짓 교사들의 영향으로 종교적 절충주의적 틀이 생길 이유가 있을까요? 답은 '아니요'입니다. 강조점은 항상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당신이 거주하고, 믿는 분이어야 하며, 당신이 구원받은 그분을 통해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당신의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십시오. 제임스 던이 말했듯이,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뿌리를 파고, 기초를 놓고, 보장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데 가르침의 특성을 제공합니다. 가르침은 복음에 더해지거나 복음보다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었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가르침의 진술의 확장으로 넘어가고 바울은 18절에서 8절에서 15절까지 풀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그리고 나는 읽었습니다. 아무도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적인 영에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 안에서 충만함을 입었느니라. 또한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체의 몸을 벗어버림이니라. 12절 너희는 세례로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범죄와 육체의 할례받지 아니함으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생명을 만드셨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망의 기록과 그 법적 요구들을 지워버림으로써 우리의 모든 범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쳐두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 해제하시고, 그들을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나는 이 구절을 좋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권능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에서 권능의 실패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기 전에 이 구절에서 몇 가지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경고와 하위 단위가 나온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고에서 경계하라는 직접적인 부름이 있고, 이 특정 구절에서 철학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서론에서 몇 가지 철학이 진행되고 있다고 언급한 이유입니다. 주로 이 특정 구절과 여기에서 철학이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철학이 다양한 형태로 풀려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면, 그것이 경계하라는 부름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개인적 책임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경계하라는 부름입니다.

그리스어 시제와 구조는 이것이 당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임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으로 자격을 부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할 수 있고, 이것은 당신에게 기대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에게 기대하면서, 당신은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철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공허한 속임수.

그 근원은 인간의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은 신의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것도 아닙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어로 코스모에 대한 스토이키아라고 부르는 것에 따른 것입니다 .

그리스어로 당신을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어를 토론에 끌어들이지 않으려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위해, 원소 정신으로 번역된 이 단어를 사용합시다.

그리고 원소의 영을 붙잡으세요. 제가 이전에 읽은 글에서도 원소의 영이라는 표현을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어 성경을 네 권 가지고 읽고 있다면, 그 단어들이 같은 방식으로 번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실제로 자신이 강조하려는 주요 요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이 철학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돌아가서 그 표현이 무엇인지 살펴보죠. 이 모든 학자들이 가끔 말하는 그리스어 표현은, 여러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조차 모르지만, 여러분에게는 그리스어로 들립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성경에 다른 번역이 있는 이유를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이 표현은 실제로 종교적 가르침의 요소나 기본 원리를 의미하거나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 의미를 전달하도록 번역할 것입니다. 둘째, 그것은 또한 고대 그리스 우주론이나 세계관에서 물질 세계의 기본적인 부분이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 공기, 불과 같은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적 힘, 악마,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두 번역 중 하나에 더 기울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최근 번역 중 일부에서 발견되는 번역은 영적 힘의 관점에서 이러한 원소 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에서 주요 목소리는 내가 앞서 언급한 학자로, 콜로새서의 목적에 대한 그의 이해는 이제 우리 모두가 시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클린트 아놀드로, 바이올라 대학교에서 가르칩니다. 클린트는 이 표현은 그가 면밀히 연구하는 고대 문헌과 이 특정 표현과 관련하여 그가 정리한 모든 증거로 가장 잘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영적인 존재 요소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네 명의 교사의 가르침은 인간의 전통에서 나왔고, 그들의 가르침은 또한 어떤 종류의 사악한 영적 활동에 따른 것이며, 분명히 그들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닙니다.

클린트는 이 단어를 설명하려고 하면서, 스토이키아는 페르시아 종교 시험, 마지카 파피루스, 점성술 시험, 그리고 일부 유대 문서에서 영적인 존재에 대해 사용된다고 썼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콜로새서에서 어둠의 권세를 지칭하는 바울의 용어 저장소에서 또 다른 용어를 나타내며, 권세, 권세, 왕좌와 함께 나타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가르친 기본적인 요점은 콜로새에서의 위험한 가르침이 악마적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휘튼에서 가르치는 다른 동료는 대부분 고대인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깔끔하게 구분하지 않았다고 덧붙일

것입니다. 특히 천체는 영적 존재와 정기적으로 연관되거나 심지어 동일시됩니다. 따라서 많은 주석가들이 콜로새에서 아스트랄 영에 대해 말합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거나 그 생각을 붙잡는다면 에베소서에 도달하면 일부 사항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 이전의 삶이 실제로 그리스도 없는 세상, 세상의 악한 영적 권세, 육체의 욕망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삶이라는 요점과 유사한 주장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세상적 구성요소 중 일부를 넣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악한 영적 활동을 넣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보고 있는 방식대로 말입니다. 이 틀을 이해했다면, 그 시험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8절에서 15절까지. 당신은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곧 하나님의 충만함이 거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충만함에 이르렀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번역에서는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말이 마치 그가 모든 규칙과 권위의 머리인 것처럼 들리는 같은 줄에 쓰여, 그가 모든 규칙과 권위의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규칙과 권위라는 단어를 통치자와 권위라는 용어로 번역한다면, 그는 그리스도가 실제로 이 모든 권세와 권능 위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 있는 머리는 반드시 첫 번째이거나 동등한 자 중 첫 번째이거나 탁월한 자가 아니라 머리 직분을 가지고 모든 자를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는 그들을 자기 아래로 끌어들이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모든 것과 모든 것 안에, 여기 많은 것들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어 이 단어, 할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무슨 뜻인가요? 그리고 아마 11절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로 할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체의 몸을 벗어 버렸습니다. 세례로 그와 함께 장사지낸 바 되었고, 그 안에서 여러분은 죽음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안에서 믿음으로 그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할례는 무슨 뜻인가요? 할례는 성경의 여러 곳에서 매우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할례에 대해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는 손으로 행한 할례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이 텍스트에서 이것이 손으로 행한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글썬요, 여러분은 이것을 읽고 이것이 기독교 개종 측면에서 할례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인가요? 그리스도의 할례, 기독교 개종인가요? 일부 주석가들은 그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아니면 세례나 할례를 언약 의식으로 언급하는 것일까요? 문맥상 그렇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문을 읽는 가장 가능성 없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특정 테스트에서 할례를 읽는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은 대부분의 최근 주석가들이 동의하듯이,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은유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다시 한 번 “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로 할례를 받았고,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체의 몸을 벗어버리고, 세례로 그와 함께 장사지낸 바 되었고, 그 안에서 여러분은 죽음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역사 안에서 믿음으로 그와 함께 일어났습니다.”라고 말하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대의 주석가들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듯이, 세례를 본문으로 다시 읽는 것은 매우,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세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읽으면 문법이 어색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고통, 어떤 형태의 그리스도와와의 동일시로 더 많이 본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혼계를 살펴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13절.

아마도 이 시험을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다면 이 시험에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특징은 주목할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다면 잠시 멈추고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리스도에게 물리적으로 일어난 일이 신자들에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과 유사한 용어로 설명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믿는 자들을 최악의 사망 상태에서 일으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이 신에게 빛진 것은 취소되었습니다. 당신이 학생 시절에 얼마나 많은 빛을 졌는지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저당으로 얼마나 빛을 졌는지는 저처럼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이 빛진 것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 그것이 당신의 머리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때때로 당신이 그 필요 중 일부를 충족시키기 위해 당신의 신념 중 일부를 타협하는 경향이 있는 곳에 당신을 두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취소되었다고 말합니다. 용서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빛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당신 주변의 속임수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는 사실, 모든 종류의 문제를 일으키는 책임이 있는 세력, 즉 사악한 영적 세력이 무장 해제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이미지입니다.

첫째, 14절에서,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법적 요구, 즉 IOU를 취소함으로써, 그것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쳐두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15절에서, 그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 해제하고, 그분 안에서 그들을 승리함으로써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강력한 인물을 생각해보세요. 골리앗을 생각해보세요. 성경에서 생각하는 골리앗보다 더 강하지만 무섭고 위압적인, 말하자면 당신을 위축시키는 골리앗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강력한 인물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고 오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이 강력한 인물을 무장 해제하고, 그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고, 그런 다음 그를 대중의 광경으로 만들어보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미지는 고대 세계에서 전투를 치르고, 전투에서 승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일어났던 일을 완벽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보통 그들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왕이나 군사 사령관을 사로잡을 수 있을 때, 그들은 승리의 기쁨에 넘쳐 전리품과 포로들을 퍼레이드하고, 거리를 행진합니다.

전투에서 이긴 자들에게는 승리의 큰 징조입니다. 또한 전투에서 진 자들에게는 굴욕의 큰 징조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리더십이 이제 적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장 해제하고 자신 안에서 승리함으로써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 콜로새에 살고 있다면 데메테르 신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치유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를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의 신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 단체를 떠올려 보면, 이

모든 영향력이 실제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들의 영향력에 굴복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바울은 잠깐만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비교했을 때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든, 그들은 그렇게 강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위를 유지하세요. 무어가 취소된 빛에 관해 어떻게 말하는지 마음에 들어요.

그는 바울의 첫 번째 단어 그림이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완전한 충성을 맹세하는 IOU에 서명한 문서를 묘사한다고 썼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충성을 바치지 못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반대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신은 그 문서를 가져가 깨끗이 지워 버렸습니다. 사실, 그는 그것을 그림에서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사실, 그는 제거의 완전성과 그것이 성취된 수단을 모두 강조하는 두 번째 단어 그림에 있습니다.

그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것은 비밀 문서가 아닙니다. 빌어먹을 거래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읽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허물과 육체의 할레받지 않은 상태로 죽었던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생명을 만드셨으니, 곧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법적 요구 사항으로 서 있는 빛의 기록을 권고하셨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쳐두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 해제하고, 자신 안에서 그들을 이김으로써 공개적으로 부끄럽게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해하셨으니,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안정감, 평화, 행복감을 찾기 위해 그리스도 외의 다른 것을 제안한다면, 당신은 양보하겠습니까? 바울이 여기서 하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유지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16절과 19절에서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패턴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내가 이전에 말한 것에 근거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썼습니다. 이제, 그것은 너희의 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서 그가 실제로 곡선을 돌릴 것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그는 16절에서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18절에서 그는 아무도 당신을 실격시키지 못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려가면서 그는 여전히 당신에게 아무도 당신을 붙잡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자원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2장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바울이 그들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했으므로, 그분 안에서 행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행하려면 뿌리를 내리고, 확립되고, 그분 안에 확고히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할 삶은 인간이나 인간의 전통에서 오는 모든 속임수나 원소적 영에서 오는 모든 속임수에 굴복하지 않는 삶이어야 합니다.

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은 사건을 제기하고 그리스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히 확립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적은 패배했습니다.

우리를 그렇지 않게 이끌어야 할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초점을 맞추고 오직 그분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에서 우리는 서론, 1장을 다루었습니다.

2장에서 저는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학문적 문제에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골로새서의 핵심은 2장 6절과 7절이라고 상기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8절에서 15절까지 논의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실제로 그 논제 진술의 확장을 보고, 교회의 믿음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다음 장에서 돌아올 때, 이번에는 개인적인 책임에 대해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알고 , 자신이 가르침을 받은 것을 알고, 자신이 믿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자원을 감안할 때, 저항하기 위해 무엇이 요구되는지 말입니다. 지금까지 감옥 서신에 대한 성경 연구 강의를 즐기셨기를 바랍니다.

나올 겁니다 . 계속 저희와 함께 공부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것은 감옥 서신에 대한 강의 시리즈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4, 문제의 핵심, 골로새서 2장입니다.